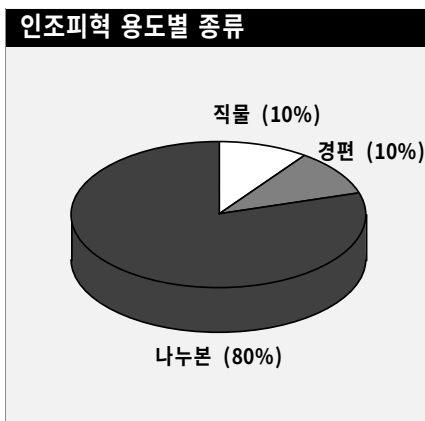


동양, 폴리에스터 인조피혁 생산

부직포 · 인조피혁 확대 ... 40만야드 생산능력 증설

동양나이론(대표 구 창남)은 0.1데니어급의 폴리에스터 극세사를 사용한 인조피혁「토프리나 에이스」를 개발, 본격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나이론 중앙연구소가 지난 91년부터 원사개질과 제직 및 기모, 염색, 수지가공 등의 후가공연구를 통해 2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이 제품은 천연피혁과 유사한 외관과 촉감을 지니고 있으며 염색결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제품설계 초기부터 국내외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 개발, 두께는 기존 제품보다 0.2mm 얇은 0.5mm로 줄였으며 폭은 55인치(기존 44인치)로 대폭 넓혀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동양나이론은 이 제품의 개발로 의류용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의 확대와 얇고 폭이 넓은 특징으로 인해 수출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간 40만야드의 생산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80년대초부터 연간 60만야드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인조피혁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동양나이론은 향후 부직포 · 인조피혁 등 관련산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조피혁의 종류로는 부직포 Sheet상태인 나누본, 직물, 경편 등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이 중 나누본이 인조피혁 시장을 대표하고 있다. 나누본 · 인조피혁은 주로 신발 · 의류 · 잡화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발산업에서 부직포쪽 세모를 선호함에 따라 신발산업용 수요는 증가세에 있다.

이에따라 신발용 나누본 인조피혁 설비증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의류용 나누본 인조피혁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자 수요가 감소, 현재 의류용 나누본 인조피혁 설비는 증설하지 않고 있다.

나누본 인조피혁은 신발쪽이 강세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세계 경기부진으로 수요는 정체세에 있다. 코오롱은 93년9월 나누본 인조피혁을 본격 가동, 나누본 종류 중 특히 Lab쪽만 생산, 양산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나이론이 개발한 인조피혁은 염색결례도가 떨어지는 점을 보완했고 물빠짐이나 색바램 등을 방지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동양나이론은 94년부터 월 생산량 5만야드 중 60%물량을 수출할 계획이다. 현재 직물용 인조피혁 수출가는 야드당 11달러수준이다.